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47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그가 흰 햇빛 속을 걷네

정영선

최치원 선생의 호랑이 붓이 생동해서
입적하신 진감선사
꽃길 따라
먹빛 가사 두르고 폭설처럼 흰 햇빛 속을 걷네
꽃밭으로 들어간 거북
몸이 아직 거북을 못 벗었는데
생전에 조실부모한 선사의 설음
당나라 소림사에서 구족계를 받는 길이었고
백성을 가르친 길이어서
묵묵히 돌비에 채 등을 주네

옥천사가 쌍계사로 이름 바꾼 진성여왕 원년
'해동고진감사선비' 우렁 우렁 세워진 날부터
기운생동 비문을 인 거북
용머리를 들고 제자리에서 영금영금
햇빛 광휘 속을 지나
노을 속으로 가고 있네
법패소리 아득히 선사께서 앞서 이끄시네

등업질 벗고 하늘가에 닿을 거라네
하늘 사람이 인간에 속속 스며서
사람들 모두 부처되어 세상 텅텅비는 날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정영선 시인은... 199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장미라는 이름의 돌방이를 가지고 있다〉, 〈콩에서 콩나물까지의 거리〉등

‘청년’ 출가학교 열기 뜨겁다

7월 1일 개원 조계종 출가학교 250명 지원 ‘눈길’

조계종교육원(교육원장 현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미항사에 개원하는 청년 출가학교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다.

6월 22일 출가학교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250명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들의 한국 최고 수재들이 모인다는 KAIST, 서울대 재학생을 비롯해 화가 지망생, 의대생 등 이력도 가지각색이다.

30~40명을 정원으로 생각했던 조계종 교육원은 ‘행복한 고민’ 중이다. 20대 청년들이 출가에 대해 폐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내부 패러다임을 여지없이 부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이력서를 받아보니 20대 청년들이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의외로 깊게 하고 있었다”며 “서류 심사과 e-mail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대의 멘토로 구성된 우수한 강사진과 전액 무료라는 파격적 지원도 20대 청년들을 산사로 이끌었다. 실제 이번 출가학교에

는 자성교와선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미국 햄프셔대 교수 해민 스님, 조성택 고려대 교수, 고미숙 고전평론가 등이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펼친다.

연수국장 진광 스님은 “한 자리에 모으

우수 강사·무료 지원 등 요인

명문대생·의사·화가 등 이력 다양

소수정예 출가제도 고민해야

기도 힘든 우수 강사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출가학교는 20~30대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제 4교구본사 월정사의 단기출가학교의 경우 2004년부터 5년간 수료자 1천 3백명 중 9%에 달하는 100명 정도의 인원이 출가했다.

6월 14일 열린 출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서도 출가학교를 주목했다. 이날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



경기도 활인선원에서 진행한 출가학교. 종단 안팎으로 출가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는가’라는 성찰이 이뤄질 수 있는 ‘출가학교’를 개설해 출가의 본래 의미를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문 스님은 “현재 종단 주도로 한 출가학교 개설이 준비 중에 있다. 틀이 잡히고 경험이 축적되면 모든 교구본사에서 출가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원 역시 종단이 운영하는 출가학교가 정착되면, 각 교구본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섭 스님은 “출가”를 공통분모로 각 사찰이 가진 특성과 정체성

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분위기에 일회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출가자 확대라는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소수 정예의 인재가 산문에 들어오는 것도 시급하다”며 “출가자 감소는 고령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현 세대를 잘 파악해 출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종회, “종단 부채 공청회서 논의”

6월 18일, 전승관서 제 109회 임시총회 개최

태고종이 전승관 건립시 받았던 국고보조금 미정산 10억원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청산키로 했으며, (사) 태고종 중앙회 명의로 된 부채는 공청회를 개최해 논의키로 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산)는 6월 1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09회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종도고충처리위원회 상정 및 폐기 건 △종단 긴급 현안건 △종단부채 책임 및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조사 보고건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첫 안건으로 발의된 ‘종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건’은 반대 의견이 제기돼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기 때 상정하거나 폐기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불교전통문화진흥관 건립 시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 미정산 10억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일정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산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만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사)태고종 중앙회 명의로 된 부채는 차후에 공청회를 열어 책임 소재 및 진상규명을 논의키로 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 도산 스님이 중회서 발의하고 있다.

조계종 교역직 인사 잇달아

호법부장 정안,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원명 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6월 22일 오전 호법부장에 정안 스님을 임명했다. 정안 스님은 6월 21일 중앙종회 제190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호법부장에 임명 동의했다.

스님은 임명동의 후 “사부대중을 외호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자승 스님은 같은 날 오후 자성과 쇠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에 원명 스님을, 국제선센터 선원장에 범오 스님을, 국제선센터 총무국장에 도일 스님을 임명했다.



정안 스님

원명 스님



범오 스님

도일 스님

관조스님 사진 ‘디지털화’

조계종·문도회 MOU 체결

관조 스님 사진 20만컷이 디지털로 보존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관조 스님 문도회(회장 승원)가 6월 21일 MOU를 체결 불교문화사진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조계종은 사진작가인 관조스님의 방대한 유작

사진을 디지털화해 영구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문화부 진명 스님은 “80년대 관조 스님이 운문사에 들렀을 때 사진 가방을 물어드리며 스님의 고단한 작업을 옆에서 지켜본 바 있다. 불교문화와 고스란히 담겨 승원)가 6월 21일 MOU를 체결 불교문화사진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조계종은 사진작가인 관조스님의 방대한 유작

정혜승 기자 bwjhs@hyunbul.com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제8차 대표자 대회 및 제7대 임원 개편대회

한국불교의 최대 연합교단인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23년전 일불 서경보 존자님께서 창회하여 2012년 2월에 정부로부터 정식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현재 한국불교계 130여 종단이 가입된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최대 연합교단으로서 회원간 한결같은 단합된 마음으로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꺼이 회원으로 동참해 주신 각 종단 종정 큰스님 이하 종단 대표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문단

Table listing members of the Advisory Board (고문단) including names and titles of various Buddhist figures.

총재단

Table listing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총재단) including names and titles of various Buddhist figures.

회장단

Table listing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회장단) including names and titles of various Buddhist figures.

법인이사회

Table listing members of the Corporate Board (법인이사회) including names and titles of various Buddhist figures.

공동의장단

Table listing members of the Joint Board of Directors (공동의장단) including names and titles of various Buddhist figures.

Table listing members of the Joint Board of Directors (공동의장단) including names and titles of various Buddhist figures.

Table listing members of the Joint Board of Directors (공동의장단) including names and titles of various Buddhist figures.

Table listing members of the Joint Board of Directors (공동의장단) including names and titles of various Buddhist figures.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명예총재 인왕신관석
총재 겸 이사장 의륜서주법
회장 청운박정운